

헬로십교회

우리 하나되어

True Love Waits

Fine Arts Festival - 그분 땀에 눈 버렸어요
초등부 부흥회 - 성령님이었습니다



우리하나되어

CONTENTS | 2009. 6

- 03 참된사랑은 기다린다 서약식
- 04 중고등부 - 그분 땀에 눈 버렸어요!!! - Deborah Kim
- 08 야엘모임 - 제자가 되기 위해 - 김지영
- 10 선교사편지 - 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 강성일, 현봉희 선교사
- 16 어머니날 - 사랑하는 엄마에게 - 한기선
- 17 초등부 부흥회 - 성령님이었습니다 - Jean Hee Yu
- 18 중고등부 - Fine Arts Festival
- 20 초등부 부흥회 - 부흥 - Deborah Hwang
- 22 인물 - Catherine Mullins - Sharon Mullins
- 23 서유석 목사 안수
- 24 성지순례 - 출애굽의 발자취를 따라서(3) - 이연일
- 32 사도바울 (22) - 갈리오의 유대인 고소 기각 - 오장석
- 35 맥체인 성경읽기표

표지사진설명
True Love Waits
반지서약식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다.



**헬로십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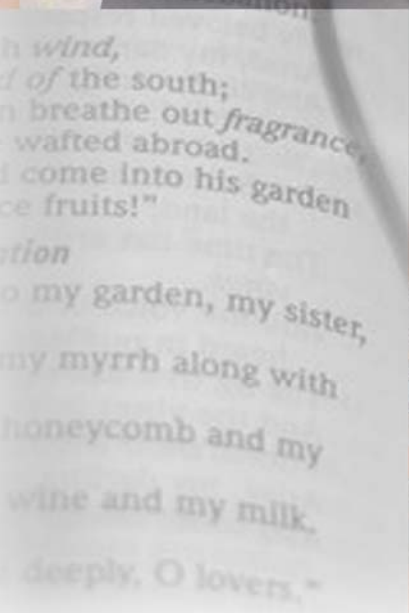
18



20



23



그분 땀에 눈 버렸어요!!!

글 - Deborah Kim (12학년)

안녕하세요! 헬로쉽교회에 온지 벌써 8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이걸 쓰게 된 이유는, 'Fine Arts Festival'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서 뜻밖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아! 이번엔 우리하나되어에 하나 써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확실히 이번 'Fine Arts Festival'은 달랐습니다. 일단, 작년과 달리 3개월 전부터 1부 예배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찬양팀에서 활동해와서 인지 스테이지 감각, 적응력은 물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12학년이 되어서 그런지 지난 번처럼 떨리고 걱정되기보단 교회 식구들께 좋은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신나고 사뭇 모험적이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DVD 꼭 사셔서 들어보세요!! 하나에 단 10불)

언제부턴가 항상 첼로와 듀엣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는데 그동안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첼리스트를 만나지 못해 서먹하게 있었는데, 어디선가 '데니얼'이라는 멋지고도 귀여운 한 녀석이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데니얼이 얼마 전부터 교회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참여해줘서 알게 됐는데, 소리가 너무 맘에 들어서 '확!' 잡았습니다. 다행히 데니얼과 저와 음악스타일 코드가 잘 맞아서 데니얼도 흔쾌히 'Fine Arts Festival'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구요, 피아니스트 수잔은 저와 5년 동안 같이 어바나(Urbana)에 살면서 같이 학교에 다닌 동창인데 수잔의 피아노

실력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교회 집사님보단 이번엔 조금 더 독립적이고 독창적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잔과 같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모여진, 명색에 '트리오' 구성으로 시작된 저희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곡의 수를 세곡으로 뽑아서 두 곡만 하

라는 윗분의 말씀을 제치고 "일단 저희를 들어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시겠으면 두 곡으로 줄이겠습니다"라는 배짱 좋은 요구까지 했어요. 세 곡을 모두 연주하기 위해, 또 관객들에게 진심 되고 깨끗한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 서로의 바쁘고 엇갈리는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실버스프링에 있는 블레이크(Blake) 고등학교에 다니는 데니얼을 후레데릭에서부터 가서 만나고, 수잔이랑 다시 교회에서 만나 연습을 해가면서 저희는 결국 세 곡의 연주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와 함께 한 곡들은 일본 트리오 'Acoustic

Café'의 'Last Carnival', 'Long Long Ago', 그리고 이권희 형제님의 '사명' 입니다. 'Acoustic Café'는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곡들을 작곡하고 연주하기로 소문난 그룹인데요, 그 중 제일 인기가 많은 위 두 곡을 선정하게 됐구요. '사명'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감사하게도 한 두 달 전에 1부 예배 연습 날 예배 선정곡 중 하나여서 그 곡과 처음 접하게 됐는데, 처음 듣는 순간부터 무슨 '황진이' 같은 사극드라마에 나올 법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음율에 느낌이 '팍!' 꽂혀서 '나



바이올린 Deborah Kim

중에 한번 꼭 연주하리라' 하고 짐해왔던 곡인데요. 감사하게도 좋은 어레인지먼트를 찾아서 덤석 물었답니다.

제가 연주회를 하거나, 제 귀가 아닌 다른 귀들에게 연주를 들려드리는 기회가 있을 땐 항상 연주할 곡들을 조사하는 습성이 있어요. 작곡은 누가 했는지, 가사가 있는 노래들은 작곡가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들을 썼는지, 그 곡들을 쓸 당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이곡을 왜 썼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알고 연주를 하면 음악이 좀 더 의미 있고 더 살아나서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어색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추어랑 프로 뮤지션의 다른 점은 둘 다 악보에 적혀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음표 하나 틀리지 않고 깔끔히 연주할 수 있어도, 프로는 그 연주에 '마음'을 담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연주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주할 때 악보 봐야 되죠, 안 틀리려고 신경 써야 되죠, 매끄러운 소리 내야 되죠, 관객들 신경 쓰이죠, 무대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떨리죠, 이 모든 것 게다가 작곡가의 느낌을 잊지 않고 100%의 마음을 악기에 담아 넣어서 소리구멍으로 아름답게, 실크처럼 뿜어낸다는 게, 연습도 연습이지만 굉장히 어려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사에 그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사명'을 감히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곡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작사,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얼굴에 수많은 파리들이 앉아 있지만 떨쳐낼 힘조차 없이 누워있는 아이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누워있는 그들을 보며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파리를 쫓아줘야 할 것만 같았고 제가 그 곳에 가서 그들에게 한 모금의 물을 먹여줘야 할 거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때 성령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여 그들을 위해 기

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중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찰막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으로 사방이 덮인 하늘에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으신 아버지께서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버지께 다가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험한 산도 팬찮고 바다 끝도 나는 팬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에게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뿐인 독생자이기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첼로 Daniel Hwang

다시 아들이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전하여 저들에게 생명을 주겠습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든 나는 팬찮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말한 후 아버지와 아들은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저도 동일하게 기도한 후 악보를 펼치고 쓴 곡이 ‘사명’입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제가 이 글을 ‘Fine Arts Festival’ 때에도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만 19년을 살면서 그렇게 당사자도 모르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날 밤, 연주 전에 할 낭독을 준비할 때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씩씩하게, 아무렴 씨익 씨익 웃어가면서, 자신한테 칭찬까지 해가면서 쓴 글을 정작

실전에서 읽었을 땐 갑자기 퍽! 막히더라고요. 전 아직도 그 눈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물이 박차고 나오는 동시에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 내가 지금 진짜 우는 건가, 왜 우는 건가, 알 수 없는 당황 속에 여러분께 보이지 않았던 제 머릿속은 너무나도 바빠지고 혼동스러웠습니다. 놀래키기 어렵다고 소문난 제가 말입니다.

아무튼! 상황은 상황이었은즉, 일단 전 자신을 안정시키기 시작했지만, 정체 모를 눈물은 계속해서 제 말

문을 막았습니다. 이권희 형제님의 글을 읽고 연주 바로 전, ‘사명’의 가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세상 온갖 짓 먹던 힘까지 다해서 멈추려는 눈물들은 묵묵히, 하지만 너무나도 강하게 제 기와 힘을 누르고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긴 침묵 때문에 관중들에게 너무 죄송했고, 가사의 흐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간신히 자신을 진정시키고 겨우 낭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곡을 듣고 가사를 읽었을 때 굉장히 익스트림 하단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한 80세 되신 노인네가 정말 인생 살 것 다 살아보시고 “더 이상 앓을 것 없다” 하시면서 쓰신 곡인 줄 알았는데, 들으셨다시피 이곡은 이권희 형제님이 그 형제님의 간증, 또는 저희들 입장에서 쓰셨다기보다 우리 예수님의 시점에서, 주님의 간증을 대신 쓰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곡 자체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너무 더 와 닿고, 이렇게 미친한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이 무거운 곡을, 주님의 심정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 마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판에는 성심성의껏 연주 드렸지만, 가사를 묵상하시고 정말 예수님, 한분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자 또한 한분의 아버지로서의 심정을 진심으로 느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제가 주위에서 남자보는데 눈 높다고 소문이 났더군요. (제 부모님이랑 오빠 너나 잘하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4년 다니면서 누굴 사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학년 때 어느 부흥회에서 ‘교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이니깐요. 뭐, 절대 목사님의 엄청난 공감되고 설득되는 설교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왜 사귀나, 지금 사귀면 뻔히 몇 년 가지도 못할 거, 결국엔 시간낭비로 끝날 거

아예 시작을 말지’ 귀찮기도 했구요. 근데 요즘 들어 느낀 건데요... 제게도 그 말로만 듣던 ‘첫사랑’이 있긴 있었더라구요.

바로 주님입니다...

내 첫사랑 주님.

제 몸이 아팠을 땐 옆에서 쓰다듬으시며 안쓰러워 해주셨고,

제 마음이 아팠을 땐 옆에서 같이 통곡해주셨고,

제가 기뻐할 땐 옆에서 같이 안으며 같이 봉봉 뛰어 주셨고,

제게 용기가 필요했을 땐 제 뒤에서 이 세상 어느

산보다 더 웅장하신 모습으로 지켜주셨고,

제게 위안이 필요했을 땐 해보다 밝고, 그 어느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유머로 웃게 하셨고,

제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아 보일 땐, 돋보기로

백배, 천배 확대하셔서 그의 눈엔 충분히 크고

멋진 절 보게 하셨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미

치도록 화가 났을 땐 저보다 더 화가 나서서 놈

들을 곧 뒤따라가 패주

실 마냥 주먹을 쥐어주

셨고,

제 관심이 그에게서 멀

어져 갈 땐 내게 매를

드시기보단 제발 돌아

와 달라고 애절한 눈물


을 흘리시며 오른손을

내밀어주셨고,

제게 사랑이 필요했을 땐 자기 피까지 흘려가면서 세상에 무엇보다 진실 되고 투명한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제가 벌써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 어느 누가 제 눈에 들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나중에 정작 결혼은 할지, 가우뚱하기도 한답니다.

단, 주님 같은 남자 하나 굴러온다면... 목숨 걸고 잡겠습니다. 



피아노 Susan Lee

Parents

Dale Kim (작곡, 작사)

**Come to my side
Mama won't you tuck in these sheets
Look me in the eyes, wish me goodnight**

**'Cause I'm in need of a goodnight dream
To take me away from all this pain**

**And when tomorrow comes
I'll bring the sun with me
And wake you up to better days**

**Goodnight, goodnight
To all your tears
The times I've been away,
The times I couldn't say
But this time, I'm here to stay**

**Where does it hurt
Now is not the time to be stubborn
You held me through all my years**

**Oh papa, you deserve
So much more than I can give**

**Goodnight, goodnight
To all your tears
The times I've been away,
The times I couldn't say
But this time, I'm here to stay**

**I'll lift this weight of you shoulders
I'll free your mind from this pain
'Cause you did the same for me whenever
My heart was too heavy for me**

From Fine Arts Festival





제자가 되기 위해

글 - 김지영

작년 9월인가 10월쯤의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700명의 교인보다는 70명의 제자를 양육하길 원하며 그것이 우리 교회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헬로쉽교회 5년, 10년을 다니면서 아직도 제자가 아니고, 그저 교인인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처럼 한가하게 교회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어디선가 봉사를 했었고, 여기저기 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려다니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생기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딱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는 생활을 한 5-6년간은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지요. 그렇게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안일하게 다녀도 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도 어린데 내가 뭘 하겠나 싶어서 일 년, 이 년 미루다보니 나중엔 그것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목사님께 설교시간에 많이 혼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자훈련이라도 들어가야하나, 봉사라도 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마음속에는 아직 둘째가 어린데 뭘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문득 뜻밖의 인물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2학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그분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른 건 생각도 안 나고, 생각나는 딱 한 가지는 그분이 항상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업고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시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아기는 등에 업고, 큰 애는 손에 잡고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반 아이들 집으로 심방까지 다니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외웠는지, 성경구절은 외웠는지 확인하러 집으로 심방을 다니신 겁니다. 그때는 어릴 때라 몰랐지만 지금 제가 아이를 갖고 생각해보니 그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왜 하필 이런 분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적

지 않게 부담이 밀려와서 기도하던 중에 제자훈련은 학기 중이라 할 수 없고, 마침 사역박람회가 있어서 '한우리반'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큐티모임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조진숙 목사님께 여쭙봤더니 여성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봐 주신다고 해서 시작하는 첫 날부터 야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참석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뭐라 표현할 수 없게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 이 교회는 내가 10년간 다니던 교회이고, 이 공간 자체는 너무나 친숙한데, 왜 그 분위기는 그렇게 어색한지... 마치 안 맞는 옷을 껴입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곤 조진숙 목사님 밖에 없었고 불편한 자리라고 느껴지니 정말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혹은 여행 중에 방문을 한다 해도 '절대 난 새신자가 아니다. 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어디서든지 잘 적응하고 교회생활이라면 뭐든지 다 알고, 어느 교회든지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의식을 가질만큼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년을 다닌 교회에서 새신자도 아니면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던 건지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대인관계가 얼마나 좁았나 생각하니까 나 자신만 알고 살았던 지난 몇 년간의 이기적인 세월의 껍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도 둘째 주는 좀 낫겠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저는 전혀 익숙해지지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였겠지요. 세 번째 모임이 다가오니까 수요일부터 웬지 가기가 싫었습니다. '가지 말까'와 '그래도 가자' 하는 갈등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은 왜 이렇게 빠른지, 또 수요일 저녁이 되니 또 갈등이 되는 거였습니다. '뭘, 큐티를 꼭 같이 해야 하나, 책도 샀겠다 그냥 혼자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하도 갈등을 하니까, 남편도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다른 봉사를 하라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제가 순종적이질 못한가 봅니다. 사

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가라고 하면 갈등하고, 가지 말라고 하니깐 그래도 가야지 하는 생각은 왜 드는지... 아무튼 누가 가야만 한다고 떠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가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는지 저 자신도 나중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색하다고 안 가면 또 다시 나는 그저 700명의 교인 중의 한 명밖에 안 될 뿐이고 웬지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 가자. 가'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신을 이겨보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계속 참석하다보니 이름은 모르지만 아는 얼굴들도 생기고, 분위기도 적응이 되고, 찬양도 좋고, 오시는 강사님들도 은혜가 되고,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건 제가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두 살짜리 딸 아이 때문에 매일성경이 온통 낙서장이 되는 날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며 느낀 부분을 어쩔 때는 전화한 통화를 통해, 아니면 누군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어떤 모습으

로든지 삶 속에서 자꾸 큐티말씀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면서 '와.. 오늘 이걸 나만을 위해 주신 말씀인가' 라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큐티모임에서는 성경책도 성경책이지만 이 매일성경이 어쩔 때는 '참 무서운 책이다'라고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몇 만명이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서 같은 날, 같은 책을 보는데 이게 꼭 나만을 위한 책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날마다 은혜도 체험하고 또 많은 만남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동안 벌써 이 야엘 모임에 온 지 몇 달이 흘렀고, 매일성경도 네 권째이고, 게다가 10년 넘게 잊어버리고 하지 않던 바이올린도 다시 잡아보고,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처음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자리가 조금은 어색하고 귀찮고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겨내 보세요. 분명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신임 오아코스 목자



안용신, 안혜령 목자 부부



유종우, 유정현 목자 부부

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글 - 강성일, 현봉희 선교사



강성일 선교사는 지난 2008년 한인 세계선교사회(KWMF) 제 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선교사로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늘 한 가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0여년 전 지금 같은 교통 시설이 전혀 없었을 그 시절에 사도바울은 그 멀고 험한 길을 세 번씩(어떤 이는 네 번이라고도 함)이나 선교여행을 하며 선교지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서신도 썼다는 그 이야기가 도무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의문이 지난 2006년에 저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풀렸습니다.

지난 1992년에 시작한 이곳 브라질 장로교 북동 신학대학은 (작업 시작은 이미 19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생 전체를 걸고 시도한 선교 작업이었습니다. 브라질 장로교의 요청으로 브라질의 북동부 지역의 복음적 황폐함에 대한 해결책이 현장에서 직접 주의 종들을 양성하여 현장으로 보내야만 한다는 결론을 합의하고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 지역이라는(한국의 약 25배 넓이) 광대한 지역의 신학교육과 경건의 책임을 부여받고 83년 - 89년 6년간의 현장 사역(피난민 사역과 토착마을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동부 지역의 중앙인 ‘빠아우이’ 주의 수도 ‘페레지나’로 이주하여 교회 개척과 함께 신학교 사역이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갖가지 어려움과 당황스러움과 교육 종사의 무지함으로 별별 경험을 다 했지만 이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세한 그 모든 과정을 말하게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7일간 4,000 km의 거리를 달려 16개 교회와 19명의 제자 목사들을 만나 2차 선교 여행을 이루며 내 마음 속에 남긴 감격과 감동을 전 하려합니다.

본 신학대학은 ‘한국교회 선교기념 -브라질 장로교 북동신학대학’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학사학위 과정이며, 목사 안수 과정의 신학대학입니다. 이 이름은 몇 년간의 작업을 거쳐 1990년에 우리 한국교회와 브라질 장로교회와의 선교동역 인준을 이루었고 2002년에 브라질 장로교 ‘리오 데 자네이로’ 총회 시 우리 교단 총회장과 임원들이 대표로 참석해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브라질 교회에 신학교 전반을 이양하는 때에 브라질 교회 전체 총대들은 일제히 기립으로 한국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명명한 이름입니다.

현재 해마다 치루는 전국신학대학 학력 경시대회에서 브라질에서 전국 최우수 신학교로 연 4년째 인정되고 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성경학교로 시작했고 이후 브라질 장로교 신학대학으로 10회의 졸업식을 이루고, 현재 90여명의 종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전국에 퍼져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70%가 북동지역에서 사역을 이루며 ‘목적인 바’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겠지만 브라질의 북동지역이라는 이름은 브라질 사람들도 고개를 찡그리는 곳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35-45도의 뜨거운 지역이며 산업이 없어 점차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여파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이곳 주민들의 마음과 영혼마저 메말라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의 종들마저 삶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페레지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빠아우이’ 주와 ‘쎄아라’ 주 외에 몇 개 주가 있는데 지난 3년 전 2006년에 1차 선교여행으로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약 1600 km를 달리며 10일간 9



(위) 브라질의 지도. ‘빠아우이’ 주의 위치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수도 ‘페레지나’는 까만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페레지나’의 전경.



개 교회와 그곳의 제자 목사님들과 그곳 성도들을 만났고, 날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매일의 집회를 통해 신앙의 격려를 주고 목사님들의 사기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며 저는 제가 학장이었다든가 교수이었다든 그런 자부심으로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투쟁을 보며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늘 저의 마음 깊이 자극이 되었고 드디어 이번 4월에 저는 그때의 감동을 그리며 다시 ‘떼레지나’의 왼쪽에 있는 ‘마라냥’ 주와 ‘빠라’ 주의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아내와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20명의 제자 목사님들을 선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의 약 10여배의 넓이입니다.

사역자들은 거의가 갓 결혼한 신혼의 젊은이들로서 작은 아기들 한둘과 함께 주님께 삶을 헌신하고 사역하는 중들입니다. 그들 가정에 줄 선물로 냄비 세트와 교회에 나누어 줄 성경책을 차안에 빈자리가 없을 만큼 가득 실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든 각 사모들의 표정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귀한 선물에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우리가 볼 때 몇 푼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4월 14일(화요일) 아침 온 식구들(저희 아들 목사 내외, 선교부 직원들)의 예배와 기도 속에 출발하며 사실 모두가 좀 걱정스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은 전국이 우기로서 온통 물에 잠겨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자동차의 액셀을 먼저 밟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약 400 km를 달려 도착한 첫 번째 교회부터 우리는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곳 목사님께 동네의 호텔(?)을 준비하라고 분명 말했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우리 내외를 자기 집에서 재우겠다고 집으로 데려가는데 고생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전기가 제멋대로 꺼지고 깜깜한 속에 수도물이 없어 바가지로 떠서 좁은 구석에서 적셔야만 하는 그런 목욕을 하고, 저녁식사는 것이 지치미 한쪽씩 먹고 예배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날씨는 덥고 습기로 찌는듯한데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미리 광고되어 신학교 학장이며 더욱이 외국인 ‘꼬레아노’가 와서 설교 한

다는데 온 동네의 화제가 되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첫날의 예배는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루고 허리가 배기는 나무침대에 누워 새우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목사님 내외와 커피 한잔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음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하루 참으로 오랜만에 겪는 고생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보다 더 어려웠던 우리의 1차 사역지 ‘에스프레이토’를 말하며 어제의 그 고생도 호강이었다며 찬양하면서 두 번째 지역으로 달렸습니다. 떠나기 전 그 부부는 저희에게 어려운 고생을 시켜 미안하다고 하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며 내미는 그것을 받으며 얼마나 고맙고 감격했는지요.

그렇게 매일 하루에 3-400 km를 달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 매일 저녁 집회하고, 목사님 내외와 많은 대화를 이루고 격려하며 2차, 3차 지역을 지나 4차 지역에 왔습니다. 이곳 4차 지역은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저희 가족이 83년 처음 사역지로 들어 온 ‘에스프레이토’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79년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 왔다가 어려운 고생 속에서 살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그들에게 살해를 당한 곳이며 미국 선교부는 더 이상 선교사를 못 보내던 중 브라질 장로교회마저 이곳에 갈 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선교사가 간다는 소식에 (저의 처음 목적지가 파라과이였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브라질 장로교회 총회장이 서신을 주었고 저희 가족은 쌍과울로 공항에 내려 통역을 데리고(당시 포르투갈어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간 첫 자리에서 ‘에스프레이토’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곳을 맡아줄 수 없겠냐고 하여 아내와 기도 중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즉시 한국교회에 임지 변경의 허락을 받고 말 한마디 할 줄 모른 채 배낭 싸 짊어지고 버스로 70시간을 올라 간 우리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곳의 상황은 완전 황무지였습니다. 전기가 수도나 병원, 학교 등등의 생활환경은 전혀 갖추어진 것이 없고 오직 피난민들이 강변에 초가집을 짓고 사는 집단이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생사를 걸고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은 영양실조가 되고, 학교가 없어 공부의 기회를 놓치고, 온통 벌레에 물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이상하게 그 당시 저희는 하나도 두려움이 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

고 바깥을 쳐다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를 진정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 해 주었고 존경해 주었습니다.

셋째는 저희가 비록 말 한마디 할 줄 몰라도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시어 선교사는 비록 틀린 말을 해도 그들은 진정한 의미로 알아들어 주었습니다.

넷째는 우리 가족의 고생스런 삶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꼈습니다.

다섯째는 그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사랑했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 주었습니다.

여섯째는 나눔의 생활이 실천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불쌍한 목사의 가족과 나누며 기쁨을 알았습니다.

사도바울이 왜 어떻게 그 험한 선교여행을 세 번씩이나 할 수 있었는지 그 묘미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그때의 형편을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날도 약 400 km를 달려 마음 설레며 ‘에스프레이또’를 찾아 들어 가는데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곳은 이제 놀랄 만큼 큰 도시가 되어 있고 그 근처에 수력발전소가 세워지면서 큰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졌었고 교회를 찾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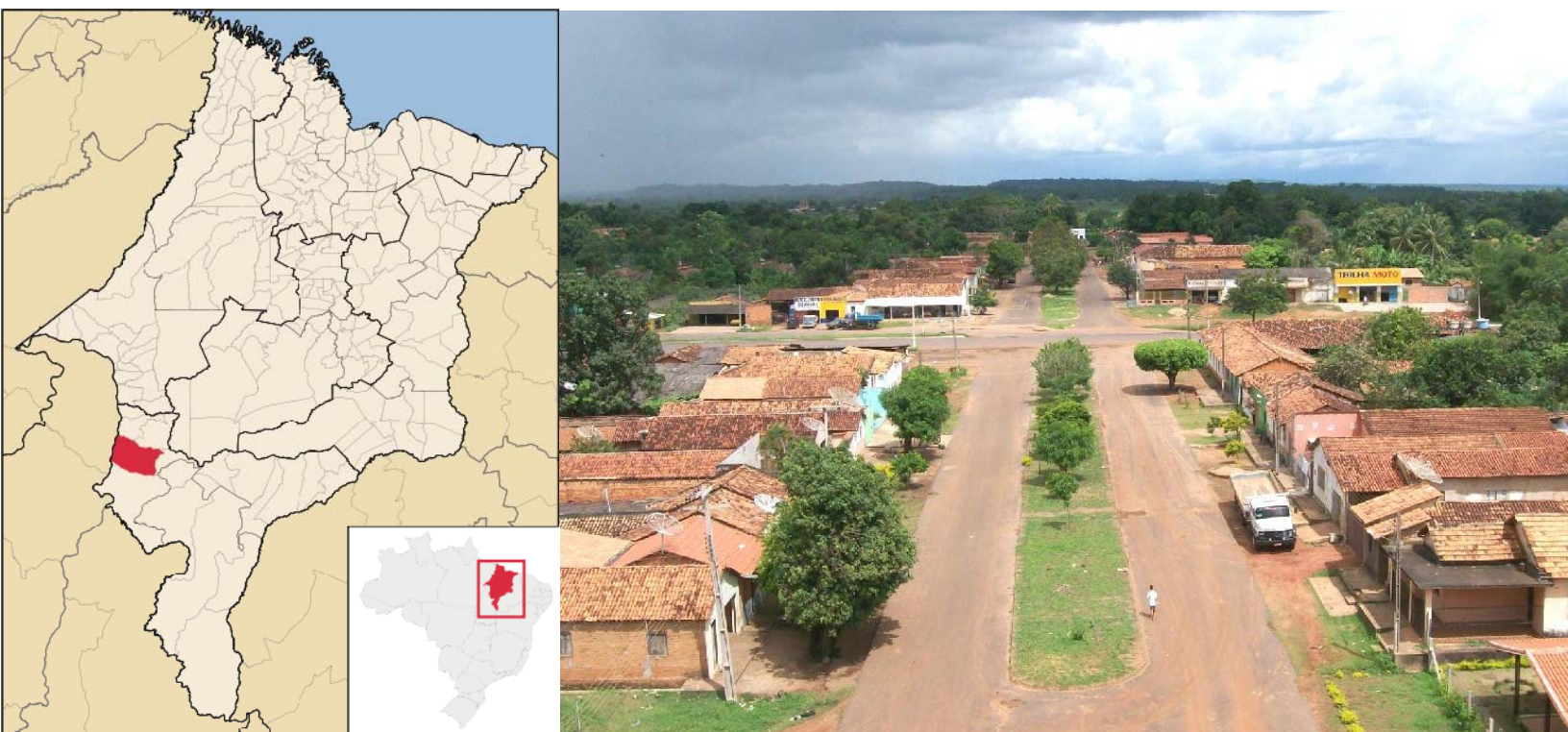
로 크고 복잡해 졌습니다. 옛날 예배를 드리던 자리는 지금 학교로 운영되며 45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그 옆에 큰 교회가 건축되어졌고, 저희가 조그맣게 지어 놓고 살던 사택(6m x 6m를 4쪽으로 나누어 놓고 삶)을 조금 더 늘려 목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난 지 약 4년 후 (지금부터 약 20년 전)그 마을이 시로 승격되고 의회가 구성되면서 각각의 길 이름이 명명 될 때 의회에서 저를 초청하여 교회 앞길의 이름을 제 이름을 붙이겠다는 경의에 찬 제의도 있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그 길 이름을 “선교사 로(Rua dos Missionarios)”로, 그리고 교회 앞의 공원 이름을 “성경 공원(Praca da Biblia)”으로 해달라는 제의에 온 의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남긴 그 이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저희 내외의 감회를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 시장이 의회에 저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까지 계속 찾아드는 옛날의 고향 사람들과 떠들며 지난 시간을 그리었고 저녁 예배 시에는 어디서 찾아내었는지 옛날의 당시 사진들을 모아 파워포인트로 보이며 ‘아버지가 다시 돌아 왔다’는 감격에 찬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발목이 꺾인 채 불구아로 태어난 아이를 1년에 걸쳐 쌍파울로의 병원에서 4번의 수술을 이루

(왼쪽) ‘마라냥’ 주 내 ‘에스프레이또’의 위치 (오른쪽) 에스프레이또 마을의 모습



고 멀쩡한 정상아로 만들어 준 아이가 이제 30살이 다 된 결혼한 어른으로 나타나 감사의 인사를 하며 자기도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는 고백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7명의 목사와 3명의 사모가 배출 된 것입니다. 진정 그 당시 선교사는 프로젝트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고 생사를 걸고 목숨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성대하게 나누고 떠나는데 모두가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그 마음은 누구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450여명의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에 들어가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한마디씩 격려해주었습니다. 분명 이제 또다시 4반세기 후에 그 아이들 중에서 주님은 또 다른 큰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그렇게 매일매일 200-400 km씩 달려 한 지역 한 교회씩 총 4,000 km를 달려 16개 교회에 19명의 목사님들을 방문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 저녁이 큰 부흥회이었습니다. 특히 ‘꼬레아노’ 목사이며, 자기네 목사의 선생님이었다는 게 더욱 큰 호기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집회의 강행군으로 온 몸은 지쳐 갔고 결국 마지막 약 4일을 남기고 몸살, 감기로 크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모든 땅과 하늘이 빙빙 돌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한 그곳에서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에 예배의 약속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역 TV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또는 시골에서 많이 쓰는 자동차에 큰 스피커를 달고 온 동네를 누비며 광고하는 자동차로 저의 방문과 교회의 예배를 알리고 집회에 초청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 후 바로 호텔에 들어가 골아 떨어지고 고열에 시달려 침대가 온통 땀으로 젖고, 저녁에 다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정신없이 설교를 하고 즉시 다시 돌아와 골아 떨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허덕거리며 헤매고 달려서 지금 무사히 집에 돌아 왔습니다.

마지막 날은 주님도 보시기에 안 되었던지 마지막 약속 지역에 큰 비를 내리시어 제가 그곳에 못가도록 하셨고 하루 일찍 집에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집에 돌아오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북부, 북동부 지역 전체가 온통 물속에 잠겨있는 형편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자 내일의 마지막

약속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 도시가 지금 모두 물바다가 되었고 그 도시에 들어오는 다리가 붕괴되어 못 들어오니까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 갈수 있다는 것이 이리 기쁠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커피로 아침을 때우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병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약 4시간 정도 달려 중간쯤 왔을 때 또다시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 국도의 다리가 홍수로 붕괴되어 교통 두절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트럭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며 점심 먹으러 세워 놓은 것인가 보다 했는데 다리가 끊겨 못가고 도중에 늘어 선 것입니다. 토요일이나 되어야(3일 후) 임시 개통이 가능하답니다. (이제 5일이 지났는데 오늘 뉴스에 아직도 교량이 설치가 안 되어 부라질 북부의 동서 지역 교통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다가 다리 저쪽 도시의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도를 보라면서 약 300 km를 뒤로 돌면 흙길로 된 내륙 동네들의 연결 길이 있답니다. 즉시 저희 내외는 뒤로 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흙길에 들어섰더니 온통 진흙 바닥에 벌써 수많은 차들이 빠져 헛바퀴 돌리며 고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길을 100 km는 더 가야 아스팔트를 만난답니다. 제 앞에 저보다 더 용기 있는 운전사를 믿고 그를 따라 미끄러운 진흙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4륜구동 자동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참 운전 실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우 흙길을 벗어나 아스팔트길을 만나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마지막 만난 작은 도시가 온통 물속에 잠겨 있어 저의 차로는 갈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한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살 길은 있어서.... 그 동네의 트럭 몇 대가 이 기회에 자동차를 트럭에 얹어 건네주고 큰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계는 그들의 장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였습니다. 큰돈(?)을 지불하고 저의 차를 트럭에 올리고 저희는 그 위에 앉아 물에 잠긴 도시를 유유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참 체계도 나쁜 인간적 마음이 있나봅니다. 모든 주민들이 물속에서 신음하는데 유유히 건너는 저는 그들의 안타까움보다 내가 지금 건너가고 있다는 기쁨에 더 몰두한 뻔뻔함입니다. 회개를 합니다.

갇은 생고생 다하고 다시 그 국도로 나와 붕괴된 다리의 반대편에 서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요. 그 사이 점심 꼬박 굶고 (내륙에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두워져서야 겨우 요기를 하고 집으로 달리는데 약 6시간이면 갈 길을 12시간 만에 집에 돌아 왔습니다.

모든 여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 참 잘 참았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과 한판 씨름한 나의 인생 같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신 그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나이 35살에 들어와 이제 61살이니 앞으로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감사는 저를 이어 제 아들이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2의 선교사로 지금 브라질 백성을 섬기며 개척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소명은 이렇게 끝없이 다함없이 이어가는 모양입니다. 내 눈 앞에 지난 26년간의 열매를 보이시고 보람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경찬이와 그 아내는 온통 뉴스 속보에 매달려 걱정하고, 시골이기에 전화 연락은 안 되고 큰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좋던지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러실까요? 천국 가는 것이 이런 기분일지요?

빨래감 다 풀어 놓고, 제자들로부터 받은 별별 선물 다 풀어 놓고 아내는 감사와 기쁨 속에 아이들에게 사랑하기에 바쁩니다. 운전하며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그 무용담을 자기가 다 운전하고 이겨낸 듯이 자랑합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의 제자 목사님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길러진 100여명의 종들이 브라질의 미래이며 주님은 그들을 통해 브라질 백성을 살릴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살아 이어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당길 것입니다. 그들에게 철저히 강조한 것은 신학보다 경건이 우선이고, 목회 의식보다 선교사 의식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인내와 순종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저와 함께 지난 신학교에서의 4년간의 생활이 그때는 혹독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훈련에 불평과 원망도 많았지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며 자기들도 그때의 저처럼 똑 같이 온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면서, 그때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하고 있다”며 고마워하는데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차이는 신학교 시절 잘 순종하고 성실하던 학생들은 지금 잘 갖추어진 교회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고, 그 당시 조금 어정쩡하던 학생은 지금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시골 내륙 깊이 나무판자로 엮어 지어 놓은 교회(?)에 그 모든 마을이나 주변의 환경이 적절히 준비 되지 못한 그런 상황 등등 여하튼 제가 보기에 많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갓 결혼한 부인과 조그만 애기 한둘과 함께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간 선물들은 그 아내들을 크게 감동시키고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마다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누어 준 성경책도 그들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성경, 찬송가 합부로 브라질 장로교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인데 그들로서는 이런 성경, 찬송가를 구입하기에 큰 부담인 것입니다.

사모들은 아내와 늦게 까지 별별 이야기 다 털어놓고 여자끼리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나, 사역이나, 환경에 불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석으로 보내는 종들에게 부인들만은 참으로 강하고 사랑스런 여인을 아내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내년 2010년 8월경에 전국의 제자 목사님들을 2회째 다시 학교로 초청하여(Home Coming Day) 전체가 사랑을 나누고 영적 재충전을 주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해 2011년에는 ‘페레지나’의 아래쪽에 있는 3-4개 주의 제자들을 방문하러 합니다.

그저 두서없이 추려서 2차 선교여정을 썼습니다. 저의 지난 26년간의 사역이 그리 헛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의 남은 모든 삶과 사역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더욱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이 모든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함께 칭찬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글 - 한기선

당신께서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는 불효녀, 기선이
가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
립니다. 불려도 듣지 못하시고, 보고도 말하지 못하
는 장애의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시는 가여운 우리 엄
마!! 그 장애의 몸으로 저희 5남매를 건강하게 낳아주
시고 지혜롭게 길러주신 엄마의 위대하고 고귀한 은혜
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못난 막내딸에게 한없
이 특별한 사랑을 쏟아 주신 많은 시간들을 추억해볼
때, 주신 사랑에 비해 아무것도 어머니께 해드린 것이
없어 눈물만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3개월 후 다시 꼭 돌아오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신 후로 4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건만 다시 초청하지
 못하는 이 불효를 어찌 용서하시겠습니까? 제가 올 때
만을 기다리고 계실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신분 문제로 인하여 달려갈 수도 없는
 저의 현실이 원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연로
 하셔서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이 되
 어 계시다는 소식에 불효를 더해만 가는 것 같아 슬프
 기만 합니다.

엄마께 용서함 받을 길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할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께 길
 을 열어 달라고 간곡히 애원하는데 더 간곡히 애원할
 게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그 날까지 몸
 건강히 계셔주세요. 당신께서 핏덩이부터 길러주신 주



림이와 경민이 많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장성한
 청년들이 되었거든요. 자주 할머니와 함께 했던 재미
있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많이 보고 싶어한답니다.
어서 만나서 지난 날 경민이와 함께 손잡고 트위스트
를 추며 깔깔깔 웃으셨던 그 때처럼 맘껏 웃으셔야죠.

사랑하는 엄마! 어제 밤 이 편지 쓰면서 주님께 기
도했어요. 지금 이 편지, 엄마께 띄울 때 85년 동안 막
혔던 귀를 열어주시며 지구 반 바퀴 거리일지라도 눈
을 열어 이곳을 보실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엄마! 이
제 울지 마시고 저의 모습, 저의 목소리 다 보고 들으
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기쁨만이 넘
치는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셔야죠? 우리 모두는 엄마
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만남의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아무쪼록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건강히 오래 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저의 기도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미국에서 막내딸 기선 올림



2009 유치부/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MD - 8월 3일(월) ~ 7일(금) 9:30am ~ 3:00pm

VA - 8월 10일(월) ~ 14일(금) 9:30am ~ 3:00pm

문의: MD - 윤혜영 전도사, VA - 변세라 전도사



성령님이었습니다

글 - Jean Hee Yu (5학년)




제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 더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부흥이 제게 왔습니다.

부흥회 첫 날, 저는 변세라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확실히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꼈던 것을 후회하지만, 조금 지루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둘째 날도 가고 싶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둘째 날은 변세라 전도사님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더 주의깊게 듣기 위해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변세라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고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팀에 소속되려고 필사적입니다. 축구팀, 풋볼팀, 인기있는 팀과 같은 곳에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 팀에 소속되기 위해 귀중한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팀에 영원히 속해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쫓아내기도 하고,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팀에는 영원히 속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쫓아내시지도 않으시고, 은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팀에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 쪽에서는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잖아” 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만약에 일어났는데 나 혼자 뿐이고, 다들 날 보고 웃으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좋은 쪽이 말했습니다. “그냥 가!” 그리고 제 다리가 밀어 올려졌고, 저는 앞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는지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왜 울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모르겠다고 했더니, 엄마는 그것이 성령님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성령님이었습니다. 


<번역: 오진이>

There was nothing more powerful in my life besides God. It was the revival.

On the first day of the revival, I was really unsure of what Pastor Sara talked about. I regret this feeling, but I felt a little bored. Although, I still wanted to go back on the second day, I was thinking that maybe Pastor Sara would say something important on the second day. I prayed to God, so that the Holy Spirit would come and help me understand the message.

When I went back, I had a little fun before going in the sanctuary. When it was time to go in, I was hoping to get the front seats so that I can listen more carefully. We sang worship songs. I sung my heart out. When Pastor Sara got on stage, I listened closely. I suddenly understand what she was saying. She said that being on god's team is important. She said that people are desperate to be in a team. Regular teams like soccer teams, football teams, popular teams, etc. Sometimes, people give up things valuable to belong in a team. Pastor Sara said that people kick you out in a regular team. Or you retire. Either way, you won't belong in a regular team forever. But you can belong in God's team forever. God never kicks you out or you never retire. You stay in his team forever.

So when Pastor Sara said to go up in the front if you want Jesus in your heart, I did. But it wasn't easy. One part of me said, "Go up. God wants you to go up." Another part of me said, "What if I stand up and I am the only one and everyone laugh at me?" The good side just answered, "Just Go!" Just then, my legs pushed up and I walked straight to the front. I realized most people went up. For some reason I started to cry. I didn't even know why!!

Afterward, my mom asked why I cried. I told her that I didn't know. She said it was the Holy Spirit. It was. 

오케스트라 & Fine Arts Festival

일 시: 5월 17일(일), 오후 3:00

장 소: MD Campus Worship Center

MC: Melanie Kim, Minsoo Kim, Philip Ahn



Conducted by Dr. Howard Lee



Guitar Trio3

-Dale Kim, Isaac Lee, Daniel Bang



Piano Solo-Mac Chong



Orchestra I



Clarinet Solo-Ki Baek Lee



Duet Song-Harim Kim, Hyung Ki Na



Korean Drum: Jiun Chung, Haun Chung, Esther Yoo, Kevin Yoo



Play The Guitar & Song: Michelle Lee



Play the Piano & Song: Sonja Chae



Orchestra II



Piano Solo: Timmy C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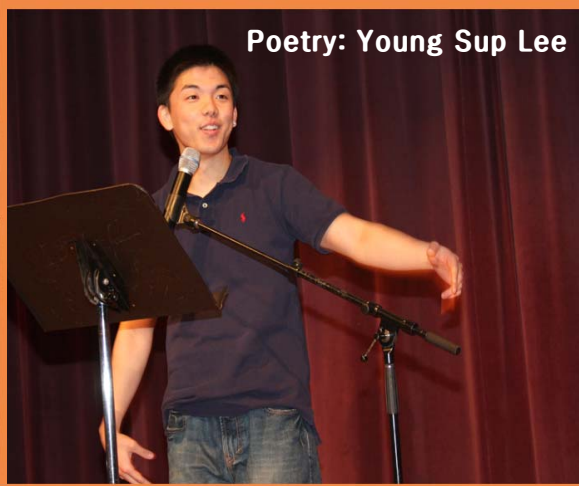


Song: James Han &

Hyung Ki Na



Poetry: Young Sup Lee



부 흥

글 - Deborah Hwang (5학년)



저와 제 가족은 제가 3살 때 헬로쉽교회에 왔습니다. 아마 유치원 때부터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왔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배울 때 저는 이 단어들을 제 마음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기독교인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2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5학년 때부터 저는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꼈었습니다. 겨울의 후반쯤 저는 초등부에서 처음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날밤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어떻게 되는지 배웠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주가 지나고 우리는 매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계속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매 주일 아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요청한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초등부 'Promisland' 학생들을 위해 준비하신 '부흥'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흥회 첫 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찬양을 드리지 않고 떠들거나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께 둘째 날의 찬양시간이 더 능력이 넘치고, 사탄이 아이들을 떠들거나 장난치도록 유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변세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팀에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내가 어느 팀에도

My family and I came to this church when I was 3 years old. Probably since kindergarten I have been learning about God, Jesus, and who the Holy Spirit was. When I learned all those things, I did not really bring those words into my heart. My parents always told me how blessed we are to be God's children and to be Christians. I never let Jesus into my heart until I was in second grade, however I did not fully understand what we had to do to be a Christian.


Since I'm in 5th grade, I felt that I was more drawn over to God. Later in winter I found out that they were having their first elementary "Intercessory Prayer", so I decided to join. On the first night we learned how to be prayer warriors, and that it is so important to pray for others. A couple of weeks later there was a Intercessory prayer meeting every Sunday at 10:30 in the morning. I was so glad that I joined because I could keep on praying for other people's needs. Every meeting we always prayed for others or if we had any prayer requests. I found out that these things just don't happen; God already planned this for us. I was so thankful for all the things God has planned for me, especially this year's "Revival" for the Promisland kids".

On the first day of the revival, before the speaker spoke we worshipped to God. However, I did not understand why some kids were talking and fooling around instead of worshipping. So while I sang I prayed to God and asked him that the second day's worship would be more powerful and Satan would not tempt the kids to talk to others or fool around. When the worship was over our speaker Pastor Sara

뿔치지 않았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팀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뒤에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회 둘째 날, 페이스 페인팅, 문바운스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는 저녁을 먹은 후,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양시간이 됐을 때, 저는 많은 아이들이 찬양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날의 찬양은 아주 힘이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첫 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둘째 날에 참석한 것에 또한 놀랐습니다. 그 날 변세라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시간이 되었을 때, 변세라 전도사님은 불평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다른 어른들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실 때,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간의 부흥회 동안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시는 지 이해합니다. 저는 제 또래의 아이들이 혹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들 제가 배웠던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Pyon came up. She talked about how you can be on God's team. At first I did not understand what she was saying, but later on I started to understand everything. Pastor Sara said that you don't have to be sad if nobody picks you to be on their team, but if you are on God's team you will never be left behind.

On the second day of the revival there was face painting, moon bounce, and dinner was provided for us. When it was time to go in the sanctuary, I was hoping I would learn something very important. When it was time to worship I was so surprised because many kids were ecstatic about the worship. I was so happy that God had answered my prayer, so I thanked him while we were praising. I thought that the worship that day was very powerful. I was very amazed of how many kids came, compared to the first day's service. Today Pastor Sara was talking about how you could win on God's team.

Later through the service it was time to pray, Pastor Sara asked the people who has complained, lied, etc. to come up so the other adults could pray for us. I got up and walked up front. When the adults started to pray for me, I started to cry. I thought I cried because the Holy Spirit touched my heart and also because I confessed all my sins to God. In the two days of the revival there were many kids who accepted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Now I understand who the Holy Spirit is and how God helps us throughout our lives. I desperately would want other kids my age, younger and older to experience what I learned, and I know they would get blessed too. 



새롭게 구성된 초등부 성가대

지난 4월 12일 영어회중 NLF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Catherine Mullins를 이번호에 소개한다

글 - Sharon Mullins

곧 22살이 되는 Catherine은 온 미국의 교회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역을 하기 위해 Atlanta Christian College (4학년)을 휴학했다. Catherine의 아버지 Pete는 성령이 충만한 초교파 교회인 Coweta Community Church (Newnan, GA)의 목사이다. Catherine의 두 남자 형제는 CCC의 예배팀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Pete II는 전기기타와 베이스를 연주하고, Jonathan은 음향담당이다. 교회에서 자라난 Catherine은 5살 때 성령세례를 받았다. 예언적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어머니 Sharon은 교회의 구원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예언과 치유에 상당히 자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Catherine은 언제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은 Catherine이 노래를 부르도록 격려했다. Catherine은 14살 때부터 예배팀에서 사역을 하거나 예배팀의 한 부분을 인도하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Catherine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수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찬양을 하면서 이러한 소망이 계속 예언되어졌었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Lakeland 부흥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기회는 100% 하나님에 의해 연출된 것이다. Catherine은 백업 싱어 (back up singer)로서 Roy Fields와 함께 사역 여행을 다녔다. Ignited Church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Catherine은 일주일간 찬양사역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야 했는데, 이때까지 부흥회는 God TV에 방영되지 않았었다. 사역을 마치고 Catherine은 플로리다로 돌아갔다. 그 후, Ignited Church의 부흥회 첫 날이 God TV에 방송이 되었고, 모든 시청자들은 Catherine의 열심과 열정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Atlanta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일 기회가 그녀에게 생기게 되었는데, Cobb Civic Center의 Atlanta Glory Outpouring을 인도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다. Catherine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매일 밤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곧 Catherine은




Catherine is soon to be 22 years old and has taken her senior year off of college (Atlanta Christian College) to travel and minister in churches all over American and will also be going overseas. Her father, Pete, is the pastor of Coweta Community Church—a non-denominational spirit filled church in Newnan, GA, where she resides. She has two brothers that are on the worship team with her at CCC. Pete II plays electric guitar, plus bass and Jonathan is the sound man. Catherine has been raised in church—receiving the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when she was five years old. Her mother, Sharon, leads a prophetic prayer group, is very involved in the church's deliverance ministry, and is used quite often in prophecy and healing.

Catherine has always loved to sing and at every opportunity her parents have encouraged her to do so. She has been on a worship team or leading worship in some capacity since she was 14 years old. Within the past few year, she recognized her desire to be in full time ministry. Going to the nations and singing in stadiums has been prophesied to her for several years. These prophecies are coming to pass even now as the Lord leads and doors open.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the Lakeland Revival was 100% orchestrated by God. She had been travelling and singing with Roy Fields as a back-up singer and was at Ignited Church the first day of the revival. She sang for a week, but had to return to college. At this time, the revival had not been shown on God TV. Upon finishing her finals, she packed her school apartment and flew back to Florida. Continuing as a back-up singer for Roy Fields, the first night back she was seen all over the world on God TV. Her enthusiasm and passion were witnessed by all that watched. Then the opportunity arose for her to bring the glory back to Atlanta. She was asked to lead the

Lakeland에 와 달라는 초청을 받았고 마침내 예배 인도자 중의 한 명이 되었다.

김모세 목사는 작년 여름 Catherine을 Lakeland에서 만났고, Catherine이 헬로쉽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Catherine은 한 번도 한국인 교회에서 사역을 해 본 적이 없었으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즐거워했다. Catherine은 Germantown에서 돌아온 뒤, “이번 사역은 굉장한 모험이었다. 모든 이들의 사랑, 호의, 영적인 굶주림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한국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라고 말했다. Catherine은 헬로쉽교회에 다시 한 번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번역: 오진이>

Atlanta Glory Outpouring at the Cobb Civic Center. She did this and it was well attended with up to 3,000 people in attendance per night. Soon after that, she was asked back to Lakeland and eventually was one of the rotating worship leaders.

Pastor Mo saw Catherine in Lakeland last summer and began preparation for her to minister at New Covenant. She had never ministered to a predominately Korean church before, but was excited to immerse herself in this new cultural experience. She came away from Germantown saying, “this was a great adventure. I was very impacted by the love, acceptance, and spiritual hunger of everyone. I have fallen in love with the Korean people and have made many new friends.” She looks forward to visiting again. 

서유식 목사 안수 (5월 24일)



가이사라. 헤롯 대제가 세운 로마식 야외 원형극장에서 단체 사진



출애굽의 발자취를 따라서 (3)

글 - 이연일

2월 27일. 므깃도 전쟁의 흔적과 가나의 포도주

내리는 빗속에 우산을 쓰고 또는 우비를 입고 지중해 연안에 본디오 빌라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아왔다. 바로 헤롯이 만든 ‘가이사라’이다. 헤롯은 가이사라를 로마와 비슷한 모습으로 건설한 뒤, 당시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도시를 바치는 의미에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명명하였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로마의 원형극장이 남아 있다. 반원형으로 무대 너머로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이사라 도시의 세월 흔적을 새겨놓은 영화를 감상하였다. 헤롯은 이곳에 거대한 자금을 들여 인공 항만을 건설하였고, 자신의 별궁도 지어놓고 당시 최고의 문화적 활동을 벌였다. 또한 이곳은 헤롯 시대뿐만 아니라, 비잔틴 시대, 십자군 시대, 이슬람 시대의 건축물이 함께 모여 있어 천년이 넘는 역사의 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로마식 야외 반원형극장의 무대 너머로 지중해 바다가 보인다.



(위 왼쪽) 하늘에서 바라본 헤롯 대제의 인공 항만
(위 왼쪽) 십자군 시대 성벽의 입구. 천장이 전형적인 십자군 양식이다.
(오른쪽) 십자군 시대의 성벽으로 들어가는 일행들
(아래 왼쪽)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적힌 비석
(아래 오른쪽) 가이사랴, 로마식 항구 도시의 잔재



갈멜산의 '무흐라카'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곳이다.
무흐라카 산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모습. 때마침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오른쪽) 엘리야의 대결을 기념하는 '카르멜 수도원'

(아래) 수도원 맞은편에 세워진 엘리야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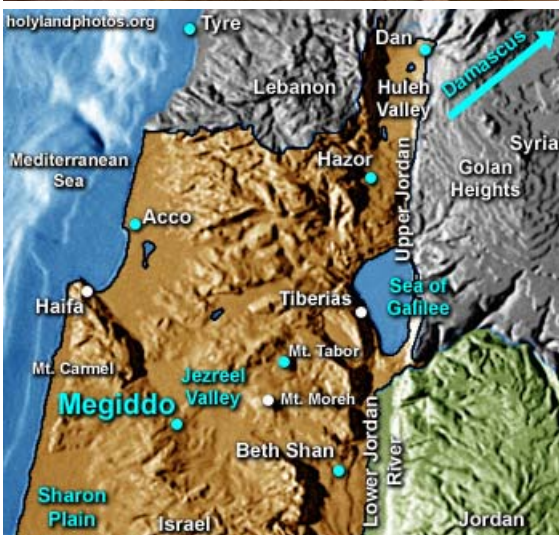
구름 속에 펼쳐진 갈멜산 지역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싸운 승리를 기념하며 세워진 교회는 산 아래로 보이는 전경이 장관이다.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항하도록 명하였다. 제단을 쌓은 뒤,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라고 도전하였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었고, 곧이어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다.



(위) 위에서 내려다 본 므깃도의 전체적인 모습

(왼쪽) 므깃도 박물관에 만들어져 있는 므깃도 성의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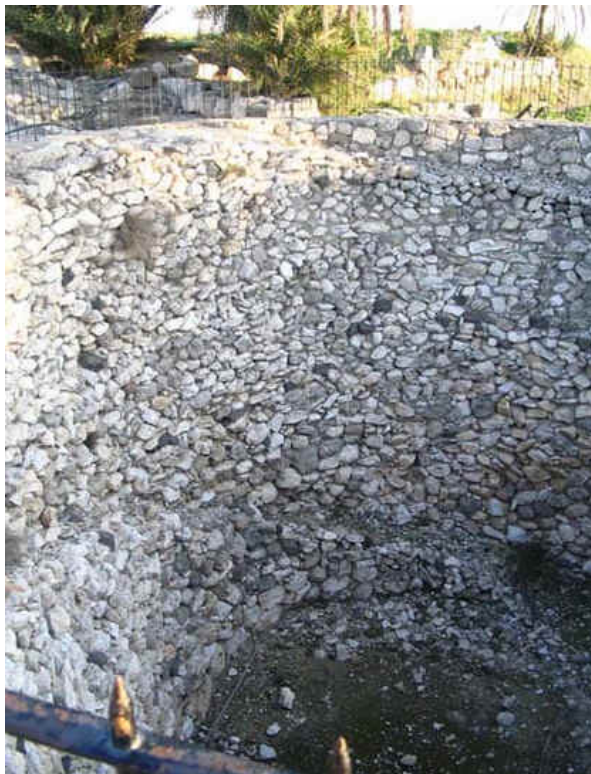
(아래) 므깃도의 위치.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 지대인 이스라엘 평야를 바로 옆에 두고 있다. 또한 이집트에서 다메섹을 거쳐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해변의 길’이 바로 므깃도를 지나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므깃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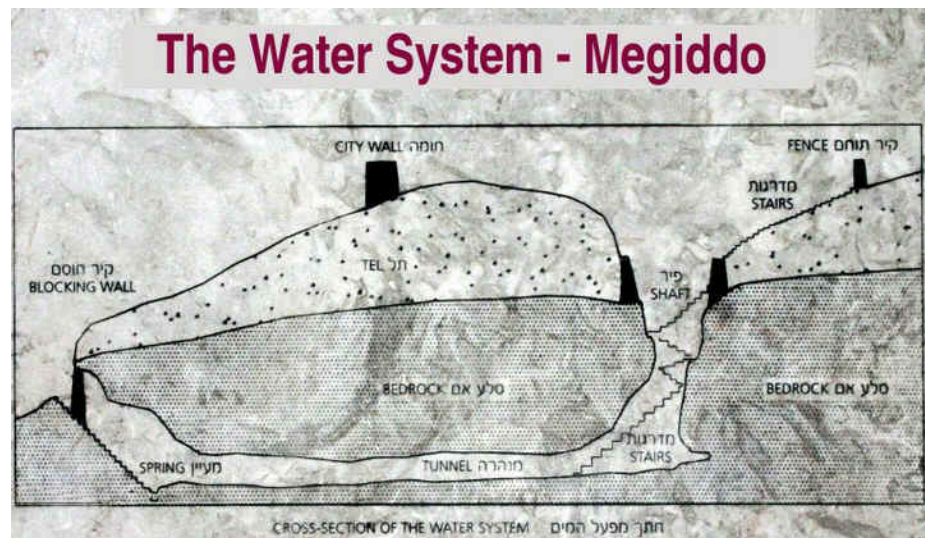
다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도시 ‘므깃도’로 이동하였다.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곳인 만큼 이스라엘 최고의 요새를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 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였기에 므깃도에는 커다란 곡물 저장고가 있다. 183개의 계단을 내려가 뚫린 터널을 지나니 혼탁하지만 생물이 흔적의 자그마한, 아합 왕이 만든 물웅덩이가 있다. 불을 피고 스물 다섯번이나 치른 전쟁의 피난처로 지내던 전쟁의 잔상인 그을림이 남아있다. 요한계시록에는 므깃도가 헬라어인 ‘아마겟돈’으로 등장하는데 종말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곳으로 예견되는 곳이다. 가이드의 설명 가운데 한 토막을 옮겨보자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대부분 잘 아십니다. 이유는 ‘아마 겟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위) 솔로몬 시대의 성벽 구조도
 (오른쪽) 남아있는 성문의 모습



(아래) 아합 왕이 만든 거대한 물수로의 구조도와 남아 있는 모습



(위) 므깃도에 있는 곡물 저장고.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이스라엘 평야가 옆에 있었던 관계로 곡물 저장고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깊이가 상당히 깊고,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저장고 테두리 주변으로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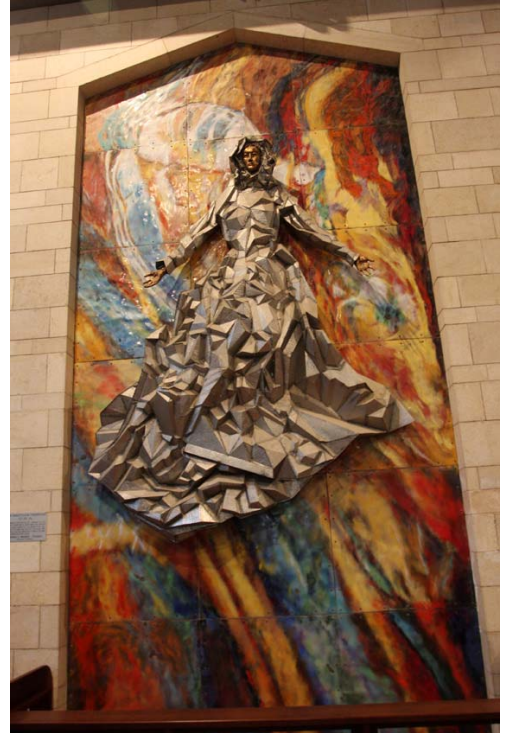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인 나사렛의 '수태고지 교회'. 마리아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당 지붕의 바깥 모습과 안에서 바라본 천장의 모습. 천장은 한 송이의 백합꽃을 얹어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백합꽃은 바로 마리아를 상징한다.





교회 벽에는 각 나라에서 보내온 마리아의 벽화들이 걸려 있다. (위) 한국 (오른쪽)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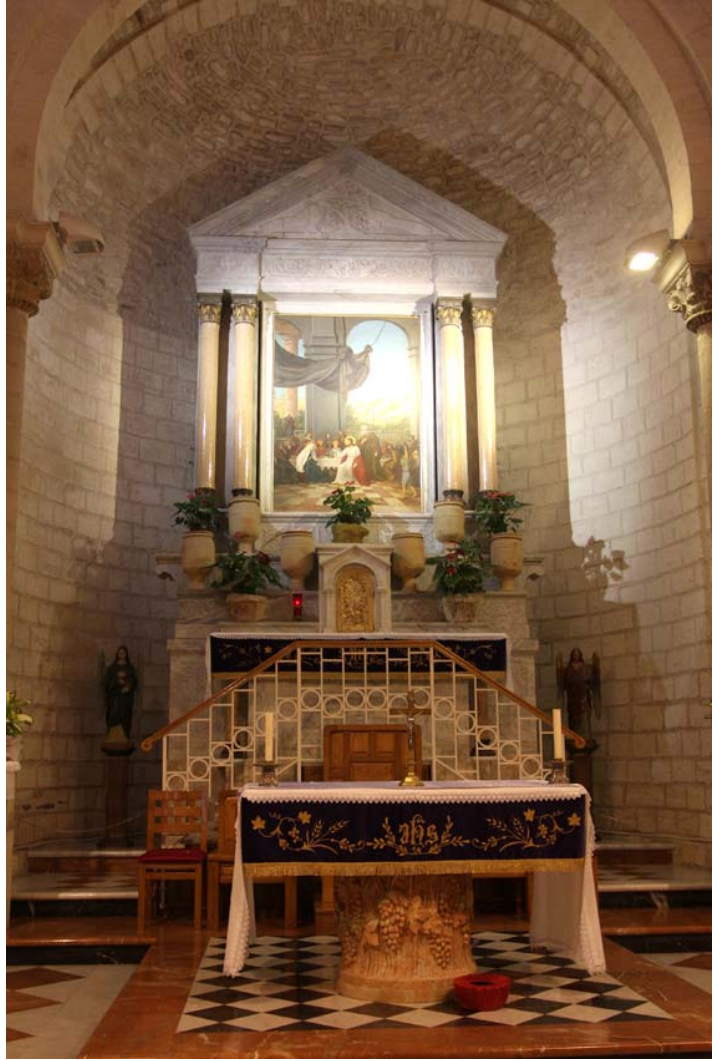
다시 버스를 타고 갈릴리 산지를 넘어 나사렛으로 이동을 한다. 갈릴리도 예루살렘만큼이나 높은 산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굽이굽이 굽이지는 가파른 산지이지만 버스는 쉽게 넘어버린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산들을 걸어서 넘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꽤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늘날의 나사렛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도시의 모습이었다. 나사렛은 구약에서 한 번의 언급도 없으며, 신약에서는 그저 작은 시골 동네로 묘사되는 곳이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냐고 반문할 정도였을까?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몰려든 타인지, 북부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다. 도시 한 복판에 우유 빛깔의 거대한 교회당이 서 있다. 중동에서 가장 큰 교회답게 웅장하기 그지없는 이 곳은 ‘수태고지 교회당’이다.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진 ‘수태고지 동굴’이 있는 곳으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곳이기에 ‘수태고지’로 불리운다.

수태고지 교회 바로 옆에는 요셉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었던 셈이다! 사돈이 바로 옆집에? 요셉의 집도 마리아의 집과 같이 동굴이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은 집을 세울 수 없어 동굴을 개조하여 썼다는 기록으로 보아, 마리아나 요셉도 넉넉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닐까?



(왼쪽) 요셉 교회 (아래)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가 있는 동굴 바닥





가나혼인잔치 교회의 외부와 내부의 모습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을 베푸신 가나혼인잔치 교회를 찾았다. 그 역사의 설명을 하듯 제단 위 벽에는 여섯 개의 물동이와 상징적으로 놓여있다. 새로 건축하기 전의 터를 일부 그대로 남겨두고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시절의 생활상이 보인다. 교회 문을 나서니 포도주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포도 농장은 없는데 포도주는 다른 곳에서 가져와 이름을 가나 포도주로 바꿔 판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숙소인 키부츠 농장 가운데 하나인 '엔게브'로 떠난다. 키부츠에서 두 사람이 1채의 집을 분배받는다.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내 소유의 집에는 침대는 물론 냉장고와 싱크대, 샤워를 곁들인 화장실 그리고 식탁과 옷장, 화장대도 있다. 가방을 풀어, 짐을 내려놓고 며칠간 쌓인 빨래를 하기도 하고 로비로 나와 그간 궁금했던 뉴스와 미국 소식을 접한다. 우리는 비록 비로 인해 번거롭고 부담스럽지만 이 비가 농작물을 살리고 대지의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라고 하니 잠깐 있다가 가는 우리의 불편함은 접어두고 잘 피해 다닌다. 🌧️

새로운 숙소, '엔게브' 키부츠 농장

갈리오의 유대인 고소 기각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다. 갈리오의 문제의 핵심이 유대인 내부의 문제이며, 단순히 종교 행위에 관한 것으로 여기고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글 - 오장석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온 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저항을 받았고 이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을 가르쳤다. 그렇다고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특별히 회당장이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 바로 옆에 살던 ‘디도 유스도’도 개종한 시점에서 회당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무척이나 싫어했을 것이다. 단지 바울을 고소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아가야 총독이 바뀌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행 18:12)

‘갈리오’의 본명은 ‘노바투스(Lucius Annaeus Novatus)’인데, 당대의 유명한 웅변가(수사학자) ‘유니우스 갈리오(Junius Gallio)’의 후원을 받는 것을 계기로 ‘갈리오(Junius Annaeus Gallio)’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갈리오는 스페인 태생이었으며 그의 동생은 당대의 유명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였다.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사회와 개인의 도덕 윤리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긴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그는 로마로 보내어져 철학과 법을 공부하여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 때 네



(왼쪽)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 (아래 왼쪽) 그리스의 지도. ‘갈리오 명문’이 발견되었던 델파이의 위치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다. (아래 오른쪽) ‘갈리오 명문’의 전체적인 모습



로 황제의 개인교사였던 세네카는 AD 48년경에 로마의 법무관이 되었고, 57년경에는 집정관(로마 공화정 시대, 2명의 최고 행정관 중 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갈리오와 세네카는 AD 65년 네로 황제 암살기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죽음을 맞았다.

갈리오가 당시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점은 사도 행전 이외에 ‘갈리오 명문(Gallio Inscription)’에서 확인되어졌다. 지난 19세기 말,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 그리스 ‘델파이(Delphi)’에서 발견되어졌는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델파이 시민들에게 보내는 글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었던 기간은 AD 51년에서 52년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바울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지방 총독이 새로 부임하는 것은 그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커다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 행정 체제나 지방의 정치적인 입지 및 지방 내 이익집단의 앞날이 새로 부임하는 총독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갈리오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좋아 보인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일관성을 지니고 정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예의를 갖추고 온유한 성품을 지녔던 것 같다. 흥미로운 것은 세네카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책을 세 권 저술하면서, 책 세 권을 자신의 형 갈리오에게 바치는(Dedication)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형의 성품을 내비치는 한 부분인 셈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갈리오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을까?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때를 바울을 고소하는 기회로 삼았다. 유대인들은 이를 위해 미리 잘 계획을 세웠을 것이며 때를 정해 일제히 일어났을 것이다. 비록 때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지만 유대교는 로마 내에서 인정을 받는 종교 행위였으며, 많은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종교적인 법을 집행하며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아마도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새로 부임하는 총독에게 바울이 유대인의 법을 어겼다고 고소하면 총독이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바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벌을 가할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다면, 더욱이나 새로 부임하는 입장에

서 소란을 원하지 않기에 자신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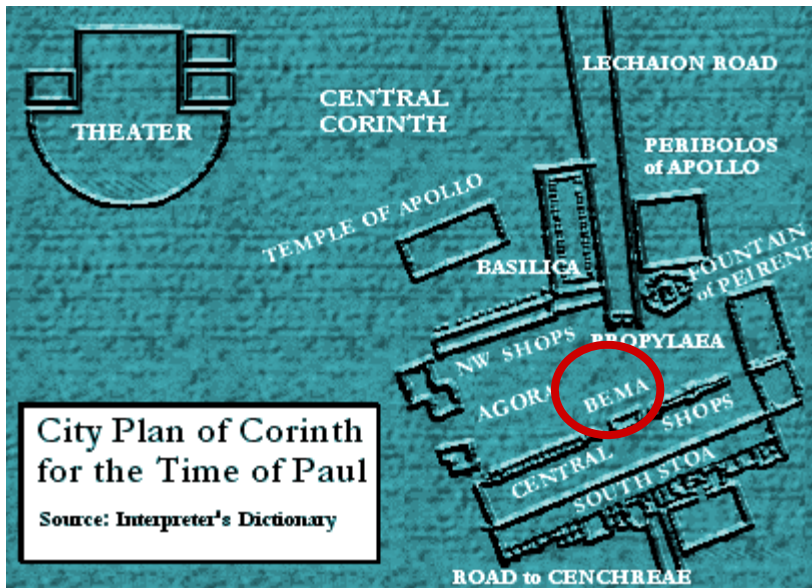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행 18:12-13)

유대인들은 계획대로 바울을 잡아 ‘재판 자리(Bema)’로 데리고 가 갈리오 앞에 세웠다. 고린도의 ‘재판 자리’는 지난 1935년 ‘브로니어(Broneer)’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1937년에 확인되어졌다. 장터 한 가운데 자리 잡았는데, 특별히 중앙 장터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죄목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행 18:14-15)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자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갈리오의 바울의 말을 들으려하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다. 아니 갈리오의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조차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한편,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어떠한 대답을 해 줄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갈리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한마디로 거절이었다. 그것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단번에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시켜 버렸다.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했거나 부정직한 일을 벌였다면 조사해야 할 일이지만, 단지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종교상의 파문이나 벌에 해당하는 것이지 본인의 사법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갈리오의 결정에 불만이였다. 특별히 바울에게 아무 것도 묻지도, 또 들어보지도 않았던 갈리오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났을 것이다. 이에 유대인들은 막가자는 듯이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스토아 철학의 집안에서 자란 그에게 유대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 아무리 그들이 억지를 부린다 하여도




(왼쪽) 고린도 도시의 지도. 바울이 섰던 '재판 자리(Bema)'는 장터(Agora)의 한 가운데 중앙 상점들과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오른쪽) 현재 복원되어 남아있는 '재판 자리'의 모습

사법권을 적용할 이유가 없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소스데네'를 언급한다. (고전 1:1) 여기서 언급된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일을 당한 후에 개종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흔했던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다른 인물일 수 있다.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다. 갈리오의 문제의 핵심이 유대인 내부의 문제이며, 단순히 종교 행위에 관한 것으로 여기고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텐에서 인간의 지식적이고 고상한 말들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운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만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바울이 당대의 지식인 갈리오와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풀어 설명했을까?

그냥 궁금하다. 



Promiseland Retreat

초 등 부 수 양 회

일시: 6/19 (금) - 6/21/09 (일)
장소: Sky Croft Conference Center
강사: 이정식 전도사
문의: MD - 신율미 집사(301-444-3100 Ext. 335)
VA - 변세라 전도사(703-444-9787)

맥체인 성경읽기표

6월	가 정		개 인	
1	신5	시88	사33	계3
2	6	89	34	4
3	7	90	35	5
4	8	91	36	6
5	9	92,93	37	7
6	0	94	38	8
7	11	95,96	39	9
8	12	97,98	40	10
9	13, 14	99-101	41	11
10	15	102	42	12
11	16	103	43	13
12	17	104	44	14
13	18	105	45	15
14	19	106	46	16
15	20	107	47	17
16	21	108, 109	48	18
17	22	110, 111	49	19
18	23	112, 113	50	20
19	24	114, 115	51	21
20	25	116	52	22
21	26	117, 118	53	마1
22	27,28:1-19	119:1-24	54	2
23	28:20:00	-119:48	55	3
24	29	-119:72	56	4
25	30	-119:96	57	5
26	31	-119:120	58	6
27	32	-119:144	59	7
28	33,34	-119:176	60	8
29	수 1	120-122	61	9
30	2	123-125	62	10

7월	가 정		개 인	
1	수3	시 126-128	사63	마11
2	4	129-131	64	12
3	5,6:1-5	132-134	65	13
4	-6:27	135, 136	66	14
5	7	137, 138	렘1	15
6	8	139	2	16
7	9	140, 141	3	17
8	10	142, 143	4	18
9	11	144	5	19
10	12, 13	145	6	20
11	14, 15	146, 147	7	21
12	16, 17	148	8	22
13	18, 19	149, 150	9	23
14	20,21	행1	10	24
15	22	2	11	25
16	23	3	12	26
17	24	4	13	27
18	삿1	5	14	28
19	2	6	15	막1
20	3	7	16	2
21	4	8	17	3
22	5	9	18	4
23	6	10	19	5
24	7	11	20	6
25	8	12	21	7
26	9	13	22	8
27	10, 11:1-11	14	23	9
28	-11:40	15	24	10
29	12	16	25	11
30	13	17	26	12
31	14	18	27	13

헬로쉽의 어느날

행사일정

- ◆ 6월 13일(토) - 20일(토)
한마음 멕시코 단기선교 (MD)
- ◆ 6월 19일(금) - 21일(일)
초등부 여름수양회 (MD/VA)
- ◆ 6월 21일(일) - 27일(토)
Workcamp - 중고등부 단기선교 (MD/VA)
- ◆ 6월 28일(일) - 7월 4일(토)
자메이카 단기선교 (MD/VA)
- ◆ 7월 4일(토)
가정폭력과 회복 세미나 (MD)



헬로쉽교회의 떠오르는 소년 기타리스트들 (초등부 성가대 발표에서)